

J. J. 톰슨 - <낙태에 대한 옹호> Part 2

○ ○

4.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또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컨대 크리스마스에 소년과 남동생이 초콜릿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하자. 만일 소년이 박스를 가져가고 남동생에게 초콜릿을 주기를 거부하면, 이는 남동생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동생은 초콜릿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와 9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연결을 끊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당신의 신장에 대한 권리를 준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권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연결을 끊음으로서,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견해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막을 권리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교정되어야 할 바는 다음과 같다. 생명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구성된다. 이는 순환논증의 위험을 품고 있으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스스로의 연결을 끊음으로서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생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부당하게 죽이지 않을 경우,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권은 침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부조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만일 이 교정이 수용된다면, 우리는 낙태반대론자들의 주장 속의 빈틈과 마주하게 된다. 태아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과 모든 사람이 생명권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태아를 죽이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 즉 낙태가 부당한 살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산모는 태아에게 영양과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임신의 경우에 산모가 태아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었다고 가정될 수 있을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아이를 원하는 여성이 "나는 당신을 초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당사자로부터 초대를 받는 방법 외에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이 임신의 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산모는 배 속의 태아의 현존,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산모가 태아를 초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아의 존재에 대한 산모의 부분적 책임이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산모가 낙태를 하는 것은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을 끊는 경우보다는 초콜릿을 빼앗는 소년의 경우에 더 가깝다. 이는 태아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따라서 부조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모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일지언정 태아를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만일 산모가 자발적으로 태아가 존재하도록 하였다면, 산모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일지언정 어떻게 태아를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해져야 할 것은 이 논리는 새로운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다. 낙태반대론자들은 태아에게 산모와 동등한 생명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태아의 독립성을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태아가 산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지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태아의 종속성은 산모에게 병든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개인에게는 없는 특수한 책임을 산모에게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반면, 이 논리는 임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인지 하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성관계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만 태아에게 산모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강간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태아를 배제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논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강간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태아는 산모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을 낙태하는 것은 그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당한 살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만족한다.

우리는 이 주장이 실제로 의도한 바를 달성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혀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소한 사항이 차이를 만든다. 만일 방이 찢쩍하여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던 도중 도둑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한다면, "도둑은 집에 머물 수 있다. 집 주인은 도둑이 존재하며, 도둑은 도둑질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므로 도둑의 존재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집 주인은 도둑에게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 만일 내가 도둑을 막기 위해 창밖에 창살을 설치했는데, 창살의 결함 탓에 도둑이 기어들어왔다면 저 말은 더욱 황당해진다. 그리고 도둑이 아니라 실족하여 떨어진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말은 똑같이 황당하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사람씨앗은 꽃가루처럼 공기 중을 떠돌아 다니며, 만일 창문을 열었을 경우 씨앗 하나가 바람을 타고 들어와 당신의 양탄자나 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자.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으므로, 창문을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촘촘한 망사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망사 중 하나에 결함이 발생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언정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씨앗이 이를 통하여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고 하자. 사람-씨앗은 당신의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가? 물론 아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창문을 열었으며, 양탄자와 가구를 놓았으며, 망사가 때때로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어떤 사람은 씨앗이 뿌리내린 것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며, 따라서 씨앗이 당신의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주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맨바닥에서 생활하거나, 창문과 문을 밀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같은 논리로, 모든 사람은 자궁적출 수술을 통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피하거나, (믿을 수 있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선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음으로서 도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장은 태아가 산모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따라서 일부 경우에는 낙태가 부당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정확히 언제 낙태가 부당한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열린 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낙태가 부당한 살인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물론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람을 몸과 분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가 9년이 아니라 단지 한 시간만을 필요로 한다고 하자.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시간 동안 함께 보내면 된다. 또한 그 한 시간동안 신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건강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물론 당신은 납치당했다. 물론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을 그 누구에게도 허가한 적이 없다. 어쨌거나 내 눈에는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그 한 시간동안 신장을 빌려주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한 시간동안 당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사실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신의 신체를 그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방식으로 "권리"라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그 어떤 사람이나 행동도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들은 당신이 거부할 경우,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용례는 지나치게 보편적이어서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나에게 이런 용례는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단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내가 앞서 이야기한 초콜릿 상자가 두 소년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닌, 형에게만 준 것이라고 하자. 형은 무뚝뚝하게 초콜릿을 먹고 있으며, 동생은 부러움에 가득찬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못되게 굴지 마라. 동생에게 초콜릿을 좀 나눠주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내 자신의 견해는 이 사실로부터 동생이 초콜릿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형이 초콜릿을 주기를 거부한다면, 형은 욕심쟁이고, 구두쇠이며, 냉담한 사람이지만, 부조리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생이 초콜릿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형은 그것을 주지 않음으로서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결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두 경우, 이 상황과 즉 초콜릿이 둘 모두에게 주어져 동생이 초콜릿의 절반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이 있던 아까의 상황에서 형의 거부 사이의 차이점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A가 B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B가 A에 대해서 A가 그 행동을 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은, 한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문제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앞선 헨리 폰다 예시를 다시 생각해 보자. 나는 앞서 헨리 폰다의 손길이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지언정, 그 손길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물론 헨리 폰다가 서부에서부터 날아와 나를 만져 준다면 몹시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예컨대 헨리 폰다가 서부에 없다고 가정하자. 헨리 폰다가 단지 방의 끝에서 걸어와 내 눈썹에 잠깐 손을 댄다면, 내 목숨이 구해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물론 헨리 폰다는 나에게 손길을 주어야 하며,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이 경우로부터 그녀는 헨리 폰다의 손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가? 따라서 헨리 폰다가 손길을 제공하기 쉬운 경우에는 손길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없는가? 누군가가 권리를 얻기 힘들어질수록 그 권리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내 자신의 견해는 비록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당신의 신장을 한 시간동안 빌려주어야 하지만, 이로부터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신의 신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로 결론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마치 초콜릿을 나누기 거부한 소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무자비할지언정 부조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해 임신된 여성이 태아에게 한 시간동안 자신의 신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태아가 산모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산모가 거부한다면, 그녀는 무자비하고, 무자비하고, 못됐을지언정 부조리한 것은 아니다. 불만들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 요점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마일 누군가가 "당신은 해야만 한다"로부터 "그는 권리가 있다"를 귀결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당신의 신장을 줄 도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바이올리니스트는 신장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당신이 거부할 경우 어떤 부조리도 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산모와 태아에 대해서도 같다. 다만 태아가 신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서 -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9년간, 혹은 9달간이라도 건강을 비롯한 이해관계나 할 일에 대한 거대한 희생을 할 도덕적 의무가 없다.